

도교육청, '학교 밖 에듀버스' 운영

123개 학년에 교육과정 재구성 현장답사 버스 임차료 2억8000만원 지원키로

전북도교육청이 수업 일과 중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 현장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년에 '학교 밖 에듀버스'를 지원한다.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총 123개 학년에, 버스 임차료 2억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3일 전북도교육청은 전주 등 도심 대규모학교는 통학차량이 없어 야외 학습의 어려움을 고려, 교사가 교육과

정을 재구성해 교과 수업 후 현장답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버스 임차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주 동북초교 2학년의 '전주에서 놀다', 전주문학초교 4학년의 '수업이 즐거운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 운영' 등 총 123개 학년에 버스 임차료 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완산서초 3학년은 '오감으로 전통 지역 문화 생애를 느껴보자', 군산 미장초교 4학년은 '우리지역 보물 찾기', 군산 월명중 3학년은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체험의 날' 프로그램에 학교 밖 에듀버스를 지원받는다.

전북도교육청은 버스 임차료 80만원 가량을 지원해 지역사회를 배움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년 단위 학생들이 중심이 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보

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회성 행사나 단순한 견학, 학교 단위 현장체험학습에 에듀버스 활용은 제한한다.

전북도교육청 신유람 장학사는 "도심학교는 수업과정을 재구성해 현장답사활동을 하려고 해도 버스 임차료가 비싸 어려움이 있어 수업 일과 중 학습관련 버스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자봉센터-전북스마트쉼터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협약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전북스마트쉼터가 전주 시민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중독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3일 전북스마트쉼터와 청소년과 자원봉사자 등의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함께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원봉사자 즉 캠프와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존 문제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진희 전북스마트쉼터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욱 전주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주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3일 전북스마트쉼터와 청소년과 자원봉사자 등의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함께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대, 주요 보직자 임명장 수여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은 지난 23일 대학본부 집견실에서 주요 보직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임명장 받은 사람은 이성수 교무처장, 이성미 학생·취업지원처장, 양현호 기획처장, 김영철 산학협력단장, 최현재 입학관리본부장, 황영호 대학원장, 김명준 해양과학대학장, 권오신 도서관장, 김영홍 정보전산원장, 황성원 교육개발원장, 박시균 국제교류교육원장, 오연중 평생교육원장, 정기문 박물관장, 선호정 공동실험실습관장, 고대영 교무부처장, 심종표 학생·취업지원부처장, 운영팀 기획부처장, 유연희 산학협력부처장, 노재규 산학협력부처장 등 19명이다. /군산=김관민 기자

학교 종업식·졸업식 날짜 점점 빨라진다

도내 43개 초·중·고 12월·1월 실시 후 2월 말까지 겨울방학

도내 학교의 학사일정이 종업식과 졸업식을 12월 말 또는 1월에 한꺼번에 치르고 3월 새학년 시작 전까지 겨울방학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부 학교에 그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같은 학사일정이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의 2018학년도 학사 일정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43개 학교가 12월·1월에 종업식과 졸업식을 함께 치른 뒤 2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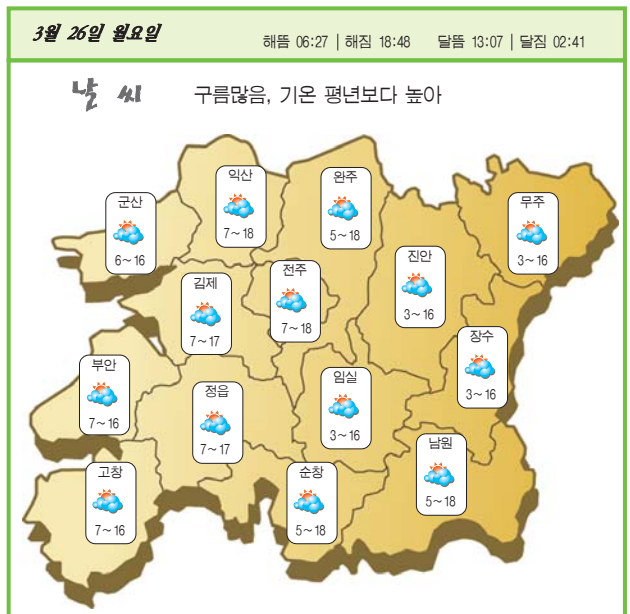
까지 겨울방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의 이리영등초 등 5개 초등학교가 12월 27~28일에 종업식과 졸업식을 동시에 치르고, 38개 초·중·고가 1월 3~11일 사이에 종업식과 졸업식을 치른 뒤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이는 12월 말에 겨울방학을 하고, 2월 중에 종업식과 졸업식을 한 뒤, 3월 새학년 시작 전까지 봄 방학을 하던 학사일정 관행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2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5교 등이며, 도내 전체 초·중·고 766교 중 5.6%에 해당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식과 종업식 날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1월에 졸업식과 종업식을 가질 경우 새 학년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업무마감 기간이 부족할 수 있음에 유의하며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자활참여자 성희롱 예방 교육

전주시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3일 센터 교육장에서 자활사업 참여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교육은 올바른 성평등 의식함양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최박 전주탁틴내일 사무국장이 강사로 초청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의 올바른 의미와 실제 직장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와 성 관련 사고발

생 시 행동수칙 등을 교육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특히 최 강사는 교육에서 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직장 내 남녀문화의 차이와 실제 직장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건전한 가치관 함양으로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봄 느끼며 전주천 자전거길 달려

첫 시민자전거 행진에 300여명 참여

전주시에서는 지난 24일 전주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태교통수단으로 자전거에 대한 인식 확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올해 첫 시민자전거 행진을 펼쳤다.

이번 3월 행진코스는 전주 시청을 출발해 공구거리를 거쳐 전주천자전거길과 비암저는 길, 원석장 마을을 돌아 전주자연생태관에 도착하는 약 13km 코스로 진행됐다.

참여한 시민들은 가족단위, 친구들과 함께 나온 학생, 동호회 회원 등 다양했으며 새봄을 맞아

봄기운 가득한 전주천 자전거길을 따라 행진했다.

시는 행진 참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이동 수리센터, 브레이크 점검 등 자전거 정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올바른 차용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시민 자전거 행진을 총 5회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3월 행진에 이어 4월, 6월, 9월, 10월, 11월에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년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